

황귀영 개인전에 부쳐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디렉터)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는 동안 황귀영 작가는 2014년~2015년에 제작하였던 작품 <집 안에 머무는 대자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14년 대한민국에는 대자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의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시리즈가 성행하였다. 황귀영 작가의 작품은 여기에 참여하였던 어떤 성매매 여성이 모 길거리에 붙여놓은 대자보를 소재로 한 내용이었다. 이 여성은 성매매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특수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로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호소하였다. 이후 성매매 여성이 공개적으로 대자보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 성매매라는 것을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사회적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이 대자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을 무렵, 황귀영 작가는 이 여성의 편에 서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흰색 티셔츠에 이 대자보를 그대로 프린트하였고 이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여성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힌 것은 막상 작가가 집밖으로 나가기도 전이었다. 프린트 내용을 본 부모님은 작가를 저지하였고 이 티셔츠를 입은 채로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작가는 부모님과 이 사안에 대하여 대화하기 시작하였다. 서로의 의견은 팽팽하였고 결국 작가는 이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부모님은 작가가 왜 이 여성을 지지하고 이를 공적인 행위로서 보여주고자 하는지는 이해하나 ‘나의 딸’이 이 대자보를 등에 붙이고 다님으로써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특정 이미지로 비쳐지는 것이 싫다고 하였으며, 아예 사람이 없는 어딘가에서 이를 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 등 일종의 협의안도 내놓으셨던 모양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산되었으나 작가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정리하여 나래이션을 만들어 영상작업물로 완성시켰으며 이 영상의 제목은 <집안에 머무는 대자보>로 정해졌다.

2018년도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개인전 <협상불가능한 관계들: 공덕동의 미확인 표식들>은 재개발에 처한 작가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다. ‘재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서 황귀영 작가가 처한 개인으로서의 입장이 집단을 향한 어떤 개입과 대화, 혹은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전 작업 <집 안에 머무는 대자보>의 연장선으로서의 작가적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그는 화환이나 현수막 등을 매개로 하여 공공을 향해 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특정 단체 혹은 입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제로 개입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등을 기록하였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거대한 낙서들은 공덕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들끓고 있는 집단을 향한 개인들의 정서를 반영한다. 그 표면위로 설치된 두개의 영상 중 하나는 작가 자신이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였는지 촬영하고 클립한 영상들로 편집한 일종의 인트로 화면이다. 또 다른 화면은 다양한 집단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대립을 칠판위에 도식 형식으로 표시하였는데, 이 중 노란색 분필로 표기된 단어들 은 이 단체들 속 개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들과 상황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러한 다층적 관계망은 전시 공간에서 작가 개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현된다.

작품 <미확인 표식들1>은 작가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꾸준히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작가는 재개발 상황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소의 느낌을 일기처럼 적은 내용을 인쇄한 현수막을 걸어 두어 지나가던 사람, 혹은 맞은편 건물의 주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이 현수막 속의 내용은 마치 일기에 기록하는 문장처럼 개인적인 내용이다. 작품 <미확인 표식들2>는 공덕동 재개발 지역에 사는 작가의 이웃들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던 프로젝트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의 화환은 건설사가 조합을 대상으로 보내는 축하 인사 표식의 표식이다. 작가는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집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임의로 호칭과 위로 혹은 축하의 메시지가 있는 리본을 단 화환을 대문 앞에 두어 이에 대한 수긍 여부를 묻는 편지를 넣어두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였다. <경계 표시하기>는 재개발 구역의 경계면에서 마주본 상가 건물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작가는 경계 지어진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건물 사용자들을 만나서 경계 짓기에 대한 기념 행위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물었다. 참여에 동의한 이는 작가가 준비한 의자 위에 자신의 물건을 두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의자를 뒤집어놓는 일종의 퍼포먼스의 결과를 기록한 작업이다. 실제 그 경계 지역을 둘러보면 경계면과 바깥 지역간의 풍경에 그닥 차이점이 없다. 단순히 사업 단위로 인하여 구분된 경계면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 이 경계를 기념하도록 유도하였던 작업이다.

이 전시는 공덕동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나, 그것이 비단 특정 지역과 특정 상황이라고 단정지어 볼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집단은 어느 상황이나 만들어지게 되고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개인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입장은 집단의 입장과 일치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전시의 제목처럼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사회 속에서 집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유지되기도 혹은 와해되기도 한다. 기획 초반에 작가는 전시의 제목을 '협상 중인 관계들'로 구상했다. 이것이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뀜으로써 작가는 자신의 관점을 보다 구체화 하였고, 전시장에는 작가가 행하는 개인으로서의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다. 황귀영 작가의 작업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존재이기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는 개인이 등장하여 특정 행위를 수행한다. 이들은 작가 자신이기도 하며 주체적 독립성이 있으나 결국 사회에 편입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의 전시 속에 등장하는 스스로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들 속에서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든 개입하고자 하는 개인의 모습이다. 대자보를 쓴 여성을 지지하였던 작가가 결국 집 밖을 나서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처럼 소통이 그리 매끄럽지 않아서 때로는 제 3자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작가는 끊임없이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들여다본다. 소통의 매체는 일반적이거나 그 안에는 개인이 너무 드러나서 개입이 좀처럼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기도 한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기도 한다.